

#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 Family Life and conflicts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홍달아기\*\* · 채옥희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가정아동복지학 전공

Dal Ah Gi Hong · Ock Hi Chae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flicts between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FIMM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living conditions of FIMMs in Korea. The results will be useful in understanding FIMMs' struggles and will help them to develop their adaptive ability to family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 three dimensions: a Sociodemographic factor, a marriage-related factor and a factor of the migrants' relationship to their family members. All conflicts result from the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migrants and their famil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languages and between their cultures. Of course, FIMMs can not adequately express their feelings and opinions in Korean language. Their loved ones and relatives can not express their feelings in the immigrants' languages, either. It is evident that there are a lot of misunderstandings caused from their language barrier. The public support for the migrants is limited. They live a lonely life and no consideration. Most of them complains that their husbands have no careful concern for their feelings. That seems because most of the Korean husbands have never had education enough to understand their problems in terms of international marriage. A close watch of what can be learned from conflict and complaints of women. However, any sympathy for foreign women's complaints should be evaluated in cultural sides : especially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Korean husband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required for a good grasp of typical intermarriage issues.

Key Words :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FIMMs),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communication, language barrier, conflict and complaints

### I.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하며(보건복지부, 2005), 대부분 외국여성이 한국에 결혼이민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귀화 전까지의 외국인 신분 등으로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며 국제결혼이란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아시아 여

러 나라 또는 구소련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사는 현상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들의 한국생활에의 적응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주위의 차별대우, 타국생활에의 부적응 등 많은 고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어려움은 주로 NGO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아왔으나 국제결혼 부부의 수적 증가와 이들이 갖는 문제점은 결국 국가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것이 많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지원

\* 이 논문은 2005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Dal Ah Gi Hong  
Tel: 063) 8506652 , Fax: 063) 850-6047  
E-mail: dalhong@wonkwang.ac.kr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다룬 연구는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여성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정폭력과 학대, 갈등 등을 한정된 지역의 표본조사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국제결혼 건수의 급증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사회적, 국가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 여성들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갖고 있는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결혼 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이 실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제결혼관련연구

국제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여 한국에 이주한 여성을 지칭한다. 이들 여성에 대한 용어는 '결혼 이민자',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연구보고서(2005)의 용례에 맞춰 여성결혼이민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그들의 적응에 관한연구(송성자, 1974, 박종삼, 1982)로 한국의 하류층 여성이 미국인과 결혼하여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미국인 남편의 학대와 버림 등으로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 기지춘 매춘과 관련이 없는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들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동포사회와 미국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 있다(여지연, 2002).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여성의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 및 사례보고(양혜우, 2005; 위홍, 2003; 박현정, 2004; 김애령, 1998; 충남여성정책개발

원, 2003; 이운애, 2004; 박재규, 2005) 등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책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여성의 적응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정현옥, 1999; 최금혜, 2005; 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영, 2004)는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개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또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의 실태(윤정숙, 임유경, 2004)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어떻게 매매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실상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부부를 심층조사한 연구(윤형숙, 2004)가 있다. 이들 연구는 외국여성들의 결혼의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고 이들의 노력이 어떠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일본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황달기, 1993)에 의하면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한국에서의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문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결혼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결혼중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자의 난립, 인신매매적 집단매선, 문화적 갈등, 경제적 격차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서서히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변화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갈등에서 나타났듯이 결혼 후의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와 2세의 성장과 적응, 교육, 식생활, 결혼 등의 생활풍습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사회도 결혼이민자의 유입에 의해 이미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진단(설동훈, 2005)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사회는 이들 국제결혼이 안정성과 긍정성을 찾지 못한다면 마을 공동체가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젊은 여성이 살기좋은 환경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한다. 다 국적의 신부들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문화적인 변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야 할 때이다.

### 2. 국제결혼의 현황과 문제점

#### 1) 국제결혼의 현황

국제결혼이 1990년도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한국남성과 결

혼한 외국인 여성은 127,762명으로 집계되었다.

2004년도 기준 국제결혼건수는 35,447건으로 2003년도 25,658건보다 38.2%가 늘어났고 전체 혼인건수의 11.4%를 차지했다. 같은 해에 결혼한 농어촌 총각 6629명 중 27.4%(1814명)가 외국여성과 결혼했고 이들 여성의 90%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부터 이주해왔다(통계청, 2004).

국내에서의 국제결혼은 1980년 통일교를 통한 일본여성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1992년 이후 중국동포와 한족의 결혼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으로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 2) 결혼과정

국제결혼과정은 4가지 방법이 주를 이룬다.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 등이며, 먼저 결혼이주해온 사람이 친구나 친척을 소개하여 오게 되는 경우는 중국동포와 한족에게 많고, 직접만나는 방식은 중국한족과 몽골여성인 경우, 종교단체에 의한 경우는 일본, 필리핀, 태국여성에게 많았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베트남, 몽골, 구소련여성이 많았다(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의 과정은 아는 사람의 소개(49.3%), 직접만남(16.1%), 종교단체(15.6%) 결혼중매기관(13.4%)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매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전북.충남RHRD센터, 2006)이다. 특히 베트남과 몽골여성의 경우 55%가 결혼중매기관(보건복지부, 2005)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조선족여성의 경우 43.8%가 중매기관을 통하고 다음으로는 친척을 통해서(28.1%)로 보고(강유진, 1999)하고 있어서 중매기관들의 중매 비율이 높을 것을 감안할 때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경우(보건복지부, 2005)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94%)가 대부분이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절반(45%)정도가 돈을 지불하였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는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후 적응에서 어려움이 크다.

결혼유형은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 30%정도가 재혼이며, 재혼인 경우는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몽골인(21%)이며 이 중에서 부부모두 재혼인 경우는 1/4~1/5 정도이다.

결혼이유는 경제적 이유(41%)와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73%의 여성이 경제

적 이유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05). 또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남성들은 한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을 도우려는 동기를 가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정하였고, 한국남성들도 자신에게 선택받은 여성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때문에 부부관계는 선택하는 남성과 선택받은 여성의 입장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한다(김상임, 2004). 또한 남성들 중에는 자신의 경제력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혼 후 여성이 기대와 현실에서 오는 차이로 실망과 불행감으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 3) 가족관계

### (1) 부부 관계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의 가족이해가 여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성차별 등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가족이해가 고수되고(김상임, 2004)있어서 이주여성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일방적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보고도 있다. 보건복지부(2005)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부부 대화 시 주로 한국어를 사용(92.8%)하고 영어(7.5%)와 본국어(6.9%)를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부부도 2.7%로 나타나서 부부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배우자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거나 폭발하는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대체로 만족이 34.3%, 매우만족이 20.6%, 그저 그렇다가 28.1%의 순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3.69점으로 평균이상의 부부관계만족도를 나타냈다. 부부간의 친밀감은 3.86, 남편이 믿고 이해하는 정도는 3.83, 성생활은 3.71로 나타나서 이들 부부관계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정도는 3.31,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3.43으로 낮게 나타나 부부관계만족도에서 불만영역이 가사분담, 부부대화, 문화생활로 나타났다. 결혼유형에 따라서는 남편의 믿음과 이해, 부부친밀감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두 영역 모두에서 남-초혼(4.07)/여-재혼(4.05)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둘 다 초혼(3.90)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신뢰도나 남편의 소비성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 대화, 문화생활 면에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부부갈등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은 41%정도가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다가 8%, 한 달에 한두 차례가 28%로 나타났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소련출신 여성과 중국동포와 한족의 경우는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높았고, 몽골과 일본, 중국한족은 자녀교육문제로, 베트남여성들은 음주, 부모와의 불화, 남편의 외도로 갈등을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하는가의 정서적지지를 보면 모국인 친구가 30%, 친척없다가 15%로 한국인과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여성의 경우는 40%나 되었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일수록 모국친구의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발생빈도는 언어폭력이 31%로 가장 높았고, 물건을 던지는 것이 23.7%, 신체적 폭력으로 세계 밀치거나 구타가 13-14%, 성행위강요14%, 변태적성행위 9.5%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발생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초혼부부보다는 재혼부부에게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국제결혼여성 100명을 조사한 결과는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57%가 폭행, 18%가 폭언, 12%가 경제적 학대라고 보고하고 있다(한국염, 2004).

국제결혼가족구성성은 한국의 일반가족에 비해 부부가족과 재혼가족의 비율이 높으며 시댁식구와 동거하는 비율도 높다(보건복지부, 2005).

## (2) 자녀관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한국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 되고 확실한 희망이 되고 있다(김상임, 2004).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출신국, 본인소생의 자녀유무, 취업여부의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며, 태국과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만족하는 편이며, 일본과 중국한족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출신국이 자녀관계만족이 가장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며, 본인소생의 자녀가 있고 전업주부인 경우가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05).

## (3) 친척관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7.7%)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나 사고방식, 생활방식, 종교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사소통문제는 시부

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다음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에 의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여성에게 시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노인의 일반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과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세탁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노인돌보기이며,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또한 노인 부양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중국조선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강유진, 1999)에 의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는 시부모와의 관계(42.8%)와 시댁친척들과의 관계(28.3%)로 고부갈등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들고 있으며,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오해를 지적하였다.

## III. 조사방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24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질적면접법에 의한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이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가정생활내용을 정리하여 이들이 갖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들이 적용하는데 갖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부인과의 적응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사료되어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인터뷰를 돕는 사람과 부인이 파악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정보를 참고로 하였다.

질적면접법은 구조화된 면접법과는 다르게 사례대상자의 생활과 경험, 상황에 대한 사례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와의 대면적인 만남을 의미하며, 이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하며, 그들의 관점과 세계를 보고 범주화하는 방식과 경험을 얻기위한 것으로 조사자는 처음부터 대화를 구조화하거나 미리 면접내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Taylor & Bogdan, 1984; 임춘희, 1996 p.40에서 제인용).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과 많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점으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가족간의 관계가 더욱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가 아닌 심층적 질적 면접에 의한 사례분석방법을 통해 이들의 역동적인 면을 알아보 고자하였다.

사례자와의 접촉은 마을의 이장을 통해 소개를 받고 면접자가 직접 통화를 한 후 약속시간을 정하여 대면을 하였고, 주로 조사자가 사례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사례

자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이웃(오래 거주한 결혼이민자)의 도움을 받아서 평균 2시간정도 소요하였다.

자료분석은 면접내용을 사례자의 양해 하에 녹음하여 다시 듣고 정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선행연구와 보도 자료에 보고되었던 내용의 범주를 토대로 이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한국말이 서투러 그대로 기록하는데는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과 전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내용을 정리하여 표기하였다. 각 사례의 내용분석결과 결혼과정과 가정생활적응관련내용으로 나누고, 가정생활적응관련내용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척관계로 구분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정생활적응과정에서 느낀 점과 적응의 어려움과 욕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은 여성결혼이민자 공통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에서 추출된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국제결혼부부의 일반적 특성을 부부 각각의 사회인구학적인 관련변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인 부인의 결혼관련변인으로 나누어 봤으며, 결혼관련변인에는 결혼관련상황, 사례를 통한 가족관계, 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갈등과 대처 등을 살펴보았다.

##### 1.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상황

국제결혼가정은 남편과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므로 남편과 부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남편이 40대가 79.1%, 아내는 20대가 45.8%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연령차는 11.08세였으며, 가장 큰 연령차는 23세였다.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 30대(37.5%), 40대(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연령차를 둔 남편의 말에 의하면 결혼중매기관에서 소개한 여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문화의 특징 중 연령에 의한 위계질서와 남성우월주의를 감안한다면 부부간의 큰 연령차는 가정내에서 남편의 권력으로 작용하여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리라고 사료된다. 또 다른 점은 남편보다 젊은 부인이 남편사별 후

젊어서 홀로되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잠재적인 사회문제임을 시사한다.

학력은 아내가 대졸인 경우는 20.8%, 남편은 12.5%로 아내가 높았으며 이들은 필리핀국적여성이었다. 고졸은 남편이 29.1%, 아내가 16.7%로 남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력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종교가 있는 남편은 54.2%이고 부인은 79.2%로 부인이 종교를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농촌층각이 결혼을 위해 일시적으로 종교를 갖고 결혼 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를 갖지 않은 부부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남편들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이중 5명은 대농에 속해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7명은 생활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자영업과 사무원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16.7%, 회사를 다니거나 기술자인 경우는 8.3%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뚜렷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16.7%인 것으로 보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타국에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혼 전의 직업은 87.5%가 무직이었으며 12.5%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직업의 내용은 간호사, 교사, 경찰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직업을 갖은 경우는 33.3%였으며, 종류는 통역사, 시간제교사, 백화점판매원, 학원교사, 보육원보조교사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 형태는 남편과 아내 모두초혼인 경우가 70.8%, 남편초혼/아내재혼인 경우는16.6%, 남편재혼/아내초혼인 경우는8.3%, 모두 재혼인 경우는 4.16%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세 번째 결혼인 남편도 한명 있었고, 남편보다 부인이 재혼인 경우가 많았다. 초혼을 제외한 약 29.1%가 어느 한편이든 재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부부적응 문제뿐 아니라 재혼 후 적응문제까지도 고려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초혼인 남성이 많은 것은 농촌거주자가 많아서 만혼을 한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남성과 재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남성재혼보다 높은 수를 나타낸 것을 볼 때 이들이 전 남편과의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심리적 상처를 잘 다루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녀유무는 재혼의 경우가 있으므로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남편과 부인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국제결혼 전에 자녀를 둔 남편은 3명이었고, 3명의 부인이 본국에 자녀를 두고 한국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본국에 자녀를 두고 온 여성은 한국의 보다 나은 경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빈도)		%		
연령	남편	20대	1 (명)	4.2	
		30대	2	8.3	
		40대	19	79.1	
		50대	2	8.3	
		계	24	100	
	부인	20대	11	45.8	
		30대	9	37.5	
		40대	4	16.7	
		50대	0	0	
		계	24	100	
학력	남편	초	9	37.5	
		중	5	20.8	
		고	7	29.1	
		대	3	12.5	
		계	24	100	
	부인	초	11	45.8	
		중	4	16.7	
		고	4	16.7	
		대	5	20.8	
		계	24	100	
종교	남편	유	13	54.2	
		무	11	45.8	
		계	24	100	
	부인	유	19	79.2	
		무	5	20.8	
		계	24	100	
직업	남편	농업	12	50	
		회사	2	8.3	
		기술자(도배·보일러공)	2	8.3	
		사무원, 사업, 자영업	4	16.7	
		무응답	4	16.7	
		계	24	100	
	부인	결혼 전	간호사, 교사, 경찰	3	12.5
			무직	21	87.5
		결혼 후	통역사, 시간제교사, 백화점판매원, 학원교사, 보육원보조교사	8	33.3
			무직	16	66.7
			계	24	100
		결혼형태	남편	둘다 초혼	17
남.초/부.재	4			16.6	
남.재/부.초	2			8.0	
부인	둘다 재혼		1	4.2	
	계		24	100	
자녀유무	남편	결혼 전	3(자녀5명)		
		결혼 후	10		
	부인	결혼 전	3(자녀3명)		
		결혼 후	10		

제생활을 기대하고 온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돈을 송금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후 낳은 자녀는 평균 1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 중인 여성이 있고, 최고 2명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혼관련변인에 대한 상황

결혼과정을 보면 <표 2>에 나타난바와 같이 결혼중매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종교기관(25%)을 통해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

<표 2> 결혼관련변인에 대한 상황

변수	구분(반도)		%
	구분	반도	
결혼과정	결혼중매업체	16	66.7
	종교기관	6	25
	제 3자의 소개	1	4.16
	연애	1	4.16
국적	계	24	100
	일본	5	20.8
	중국조선족	3	12.5
	중국한족	3	12.5
	필리핀	5	20.8
	베트남	6	25
	태국	1	4.2
	몽골	1	4.2
이주여성의 주관적 경제수준	중상	2	8.3
	중	9	37.5
	하	13	54.2
	계	24	100
거주기간	2년미만	8	33.3
	5년미만	7	29.2
	7년미만	6	25
	10년이상	3	12.5
	계	24	100
동거가족	시부모	6	25
	시모	4	16.7
	시부	1	4.2
	동서	1	4.2
	부부+자녀	12	50
	계	24	100

났다. 제3자를 통해서 결혼한 경우는 먼저 한국에 시집은 여성이 자신이 잘 아는 친구를 소개한 경우이며, 또 한명은 두 차례의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사기를 당한 후 자신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신부감을 구해온 경우이다. 최근 많은 국제결혼의 경우 전문적인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들 중매업체에 대한 국가정책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친구가 중매하여 시집은 여성은 서로 의지하며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에 상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결혼중매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는 신부들의 대부분은 신앙적 바탕에 의존하여 맺어진 배우자라는 의식을 갖고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낮은 생활방식과 타국이라는 상황에서 이방인과 살아가는데 정신적 의지가 되는 종교는 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의 지나친 사생활의 간섭이 부부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필리핀이

20.8%, 중국조선족과 한족이 같은 비율로 12.5%, 태국과 몽골이 4.2%의 분포를 나타냈다. 1992년 이후부터 중국의 조선족이 가장 많았으나 차츰 베트남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한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위수준이라고 지각하는 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수준이라고 지각한 부인이 54.2%, 중은 37.5%, 중상이 8.3%로 나타났다. 생활이 곤란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부인이 가장 많은데 이는 한국에 올 때 기대했던 것 보다 실제 생활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불만족의 요인이 되리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국제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막연히 한국에서의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꾸었는데 결혼을 하여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상임, 2004).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7년 미만은 25%, 가장 오래된 여성결혼이민자는 16년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은 시댁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25%, 시

모만은 16.7%, 시부모만은 4.2%로 45.2%가 어느 한쪽이든 시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서와 조카들과 동거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49.4%가 부부와의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례를 통해본 가족관계

#### 1) 부부관계

사례를 통해본 국제결혼부부들이 많이 경험하는 갈등은 부부간의 불신이다. 국제결혼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도망갈까 봐 안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신한다는 자체가 쌍방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겪는 갈등과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남성들의 음주습관과 상황설명을 잘 하지 않는 특징들이 타국의 여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때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 부부갈등의 원인 중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에 돈을 보내는 문제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난한 친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감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인은 종교의 힘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남편은 부인의 지나친 종교생활과 종교의 사생활 간섭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어 종교를 멀리하게 된다고 말한다. 국제결혼이 종교단체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족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들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느끼는 종교기관의 사생활관여는 부부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종교기관의 적절한 배려가 요구된다.

남편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슬프다.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하는데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남편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싫어한다. 한번 외출하려면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 내 신세가 한탄스럽다. 왜 같이 살면서 믿지 않는지 짜증이 난다.(중국한족으로 중국에 아들1명이 있는 부인 42세와 초혼인 남편 45세, 재혼+초혼 결혼6개월)

결혼 4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남편은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가하는 의심도 생긴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으면 왜 당신하고 결혼했겠는가라고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다른 여자가 있으면 늦게 들어온다.(필리핀부인 23세와 남편 42세, 모두초혼)

나는 돈쓰는 것이 아까워서 신혼여행 가는 것도 반대했다. ~친정에 20만원씩 보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남편은

좀더 잘살면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결혼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베트남부인 24세와 남편 47세, 초혼+재혼)

가족생활에서 힘든 점은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둘 사이에 큰소리가 오고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교회에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싫어하여 짜증이 날 때가 많다.(일본부인 28세와 남편 30세, 모두초혼)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종교적인 문제만 나오면 언쟁을 하게 된다. 남편은 교회가 너무 사적인 일까지 간섭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하고 거부할 때 가장 괴롭다.(일본부인 38세와 남편 46세, 모두초혼)

#### 2) 자녀관계

자녀가 자라면서 갖게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갈등은 자녀와의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많은 국제결혼가정이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얻게 되는 유리한 점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가장 급하게 하고 싶은 것도 한국말을 배우는 것임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언어문제가 이들에게는 큰 갈등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시부모님이 계셔서 한국말을 하니까 자녀의 언어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안된다.(초등생들 둔 일본부인)

아이가 조금 크니까 엄마인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고 걱정이 된다. 엄마가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런 것 같다.(6세 아들과 3세 딸을 둔 베트남부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혼내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엄마 미워, 엄마 필리핀에 가버려" 라는 말을 잘한다. 지금은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커서도 그런다면 슬플 것 같다. 언젠가 남편과 싸울 때 하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5세 아들을 둔 필리핀부인)

#### 3) 친척관계

본 연구의 사례 중에서 50%가 시댁식구들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댁식구들이 협조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밥상을 내던지기 일수다(필리핀부인, 대졸46세, 남편 45세, 재혼+초혼, 결혼6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같은 며느리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동서시집살이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이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족들의 시각이 차별적인 대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동거하는 가족

들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이 요구되며, 시댁식구들의 배려와 관심이 낮은 타국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시아버지, 시아주버님 내외와 조카3명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 시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준다. 그러나 동서는 '무섭다'. 내가 조금만 쉬고 있는 것 같으면 마루를 가리키며 "땀아땀아" 라고 욕박지른다.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것 같다.(베트남부인 24세와 남편 38세, 모두초혼)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처럼 대해주신다. 내가 입은 옷은 시어머니가 사주신 것이다. 한국이름도 지어주고 피아노와 한글도 배우고 있다.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시댁식구들의 도움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한국 말을 잘한다. (베트남부인 23세(임신중)와 남편 28세 약한 신체장애)

#### 4.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갈등과 대처

##### 1) 여성결혼이민자의 갈등

###### (1) 가족 갈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호소하는 가족갈등은 남편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고, 남편과 시부모님으로부터의 불신과 감시가 이들 여성의 불만이면서 갈등인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로서 오직 남편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부인들이 호소하는 남편으로 인한 갈등요인<표 3>을 보면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결혼 전 가족생활교육을 한다면 부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적응하는데 남편이 힘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가족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여성들에게는 커다란 갈등 원인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함께 사는 시부모나 동서들의 무시와 따돌림, 홀대를 지적한 사람도 많아서 이들이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도 요구된다.

###### (2) 생활적응 갈등

한국에 살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답답함과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농사일이 힘들다, 일이 많다, 문화가 달라서 당황스럽고 웃음거리가 되어 소외감을 느낀다, 한국남성의 술문화, 돈이 없다, 친정에 가고 싶다, 남편 아닌 가족들의 차별대우, 외롭고 무섭다(시골), 종교 갈등 등을 꼽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부부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도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호소들을 종합해보면 이들 여성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이들 여성이 이혼을 생각해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의 성격불일치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여(강유진, 1999)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이들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짐작케 한다. 어느 여성은 도시에서 살고 싶고, 도시에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고 농촌생활의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들이 한국에 시집을 때는 한국의 도시문화적 생활을 꿈꾸었지만 현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이 대해 큰 실망감을 갖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현실감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 제일 문제다.(베트남부인 24세, 남편 30세, 모두초혼)

남편은 나와 세 번째 결혼이다. 남편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상한다.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왔는데 사는 것이 친정보다 나을 것이 없어서 한숨만 나온다(베트남부인 24세, 초등 졸, 남편 47세 초등 졸, 초혼+삼혼)

시부모님과 가족 모두 모인 장소에서 한국말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 흥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고, 소외감을 느낀다.(베트남부인 25세 중졸, 남편 40세, 모두초혼)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공주처럼 잘 살줄 알았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힘들다. 농촌생활이 너무 어렵고 가족이 모이면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서 슬프고 외로워서 많이 울었다. 시어머니는 말도 못하는 것이 살림은 어

<표 3> 가족관계 갈등

가족관계	주 호소문제
남편	큰소리, 물건집어던지기, 독단적인 일처리, 종교적 갈등 무능력, 남편의 좋지 않은 건강, 남편의 장애, 말없는 성격 불신,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음주, 폭력, 늦은 귀가, 대화부족
시부모님	시부모의 감시, 시부의 폭행, 홀대
동서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 무시

떻게 하느냐고 항상 야단을 친다(필리핀부인 32세, 남편 40세, 모두초혼).

나는 한국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생각하고 왔다. 그러나 시골에 살고 있으니 수영, 스포츠댄스, 요리, 한국말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생활이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다.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 외롭고 답답하다(몽골부인 31세, 남편 43세, 초혼+재혼).

## 2) 여성결혼이민자의 갈등대처방법

여성결혼이민자의 갈등대처방법은 이들의 결혼지속년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례자의 결혼지속년수의 분포와 적응내용을 참고하여 3년이하, 5~6년이하, 10년 이상으로 나누었다.

결혼지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는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일을 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기대나 의지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갈등을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5년 정도의 여성들은 수다와 쇼핑 등을 들고 있으며, 자국민이나 친척들과의 만남 등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혼지속년수가 3년 이하로 짧을수록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말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자국민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좋아하는 타국생활에서의 갈등해소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여성들의 초기 적응에는 종교가 중요한 대처기제임을 알 수 있으며, 직업생활을 하든지, 서로 이야기할 상대를 갖게 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들 여성들의 특기를 살려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1) 결혼지속년수 10년이상

나는 종교의 힘으로 결혼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느낌으로 산다. 처음 말을 배울 때 남편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살림에 대한 도움도 많아서 별 어려움이 없다(일본부인 43세, 남편 48세, 모두초혼, 결혼 16년).

나는 연변 시에서 도시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산골(임실)이었다. 캄캄할 때 도착하여 아침에 일어나보니 땀 물러 산밖에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농촌생활이 너무 힘들어 술도 많이 마셨는데 남편이 도망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여 살다보니 자녀도 둘이나 낳고 10년이 흘렀다. 지금은 읍내의 보육원에서 중국어강사를 하여 60만원을 받지만 남편의 농사도 많지 않아 차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힘들다. 남편이 말이 너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생활에 익숙하여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서 답답함을 달랜다.(중국조선족부인 43세, 남편 55세, 모두초혼, 결혼10년)

### (2) 결혼지속년수 5년~6년이하

같은 나라 친구와 함께 만나서 남편 흉을 보거나 쇼핑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일본부인 38세, 남편 43세, 모두

초혼 결혼6년).

시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욕을 하여 사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이 든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 착하고 위로를 해주니 고맙다. 지금 학원강사로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돈벌어 자립하면 친정에 가고 싶다(필리핀부인 46세, 남편 45세, 모두초혼, 결혼6년).

남편은 재산이 많은 편인데 교통사고로 말과 걸음이 어둔하다. 시댁식구들은 그저 고마움을 갖고 나를 대해주지만 남편과의 정은 없다. 그래서 주말이면 차를 타고 한국에 와 있는 친척들을 자주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온다(조선족부인 38세, 남편 41세, 재혼+초혼, 결혼 5년)

5년 전 산골마을로 시집을 왔을 때 무서웠으나 2년이 지나 언니를 그 지역사람에게 소개하여 가까이 있으니 외로움이 없어졌다(조선족부인 33세, 남편 52세, 모두초혼, 결혼 5년)

### (3) 결혼지속년수 3년이하

남편과 종교가 같기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으로 극복한다. 또 그림을 좋아하여 현재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서 칭찬을 해주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부인 36세, 남편 45세, 모두초혼, 결혼3년).

버스를 타려면 30분 이상 걸어야하고 방향감각도 없어서 혼자 나가는 것이 두렵다. 때로는 고향이 그리고 외로울 때가 많았으나 얼마 전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서 가끔 베트남말로 말을 실컷하고 나면 답답함이 없어 진다(베트남부인 23세, 남편 40세, 초혼+재혼, 결혼2년).

내가 우울해하면 남편이 대전에 가서 놀다오라고 한다. 그러면 쇼핑도 하고 시내구경을 하고나면 조금 풀린다(몽골부인 31세, 남편 43세, 초혼+재혼, 결혼3년)

## 3)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

### (1)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점

이들 부인들의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내 마음을 알아 달라'였으며, 큰소리치지 말아 달라, 약속을 잘 지켜 달라,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 술을 조금만 먹어라, 나를 믿어 달라, 대화를 많이 하자, 친정어머니가 영주했으면 좋겠다 등의 욕구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남자들이 자신을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하여 서로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욕구라고 보여 진다. 또 한국남성들은 표현도 잘 하지 않고 부인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는 것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해결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는 평균 74점정도로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비교하여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보건복지부,2005)는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의 사례자중에는 남편이 외국인 여성과 잘살아보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한국남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례

는 남편이 알아서 모든 면에 배려해주어 부인의 남편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도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하고 싶은 것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싶다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었으나 배울 곳이 적절하게 없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가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결혼부부 중 90% 이상이 대화 시 한국어를 쓰며, 필리핀부인은 53%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고 있으며, 베트남부인들은 9%정도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위의 여러 부분에서도 갈등과 문제의 가장 근저에는 언어장벽에 의한 의사소통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강유진, 1999)에서도 결혼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것이 생활습성, 언어장벽 등 문화적 차이(29.9%)였고 다음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27.2%)이었고 말씨나 음식 솜씨에 대한 것도 지적하였으며, 이주여성들이 당장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언어소통문제가 30.5%(양정화, 200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없이 자연적으로 습득한 중간언어 상태가 화석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안설희, 2004)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요리법을 배우고 싶고 취미활동도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다른 친족원의 간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능력을 길러 분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는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 하여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취업을 하여 돈을 벌어 모국에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V. 결론 및 논의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또 많은 농촌총각들이 외국여성들과 결혼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외국여성이 한국에 결혼이민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주위의 차별대우, 타국생활에의 부적응 등 많은 고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 전까지의 외국인 신분 등으로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2세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과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에

서 가장기본이 되는 가정생활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가족관계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국제결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평균 11.08세이고 가장 큰 연령차는 23세로 나타났다. 남녀의 평균수명이 평균78세로 볼 때 일반적으로 노년기를 홀로 보내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잠재적인 노인여성의 사회문제를 내포한다고 보여지며, 배우자선택 시 연령차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력에 있어서 평균적인 학력은 남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과 부인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아내의 학력이 대졸이고 남편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이들 학력 차에 따른 부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종교가 있는 부인이 79.2%로 남편(54.2%)보다 높다. 종교단체가 결혼을 중매한 경우인데 남편이 종교와 멀어짐으로써 부인의 죄의식과 불만이 커져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종교를 통해 결혼한 여성들은 종교의 힘으로 타국에서의 생활을 견디었다고 하는 반면 남편들은 종교의 지나친 사생활간섭을 이유로 반감을 표하고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지가 요구된다.

남편들의 직업이 농업이나 일용근로적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부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국보다 나은 생활을 생각하고 국제결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둘다 초혼인 경우가 가장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재혼이고 남편이 초혼인 경우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경우는 남편의 불신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둘다 재혼인 경우는 재혼 후 적응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결혼관련변인을 살펴보면 결혼과정에서 상업적인 결혼중매기관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종교기관이 많았다. 결혼중매기관은 결혼당사자간의 충분한 교제의 기간이 없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중매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결혼 후 적응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을 사온다는 의식을 남성뿐 아니라 시가족들에게까지도 갖게 하기도 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결혼중매기관의 무분별한 중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을 진행하기 전에 국제결혼을 결심한 당사자나

가족들의 인식도 소중한 가족원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은 이국의 다양한 문화가 한국사회에 접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한국인에게도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하위로 지각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런 환경임을 나타낸다. 국제결혼의 동기 중에는 한국이 자국보다 잘사는 나라이며, 보다 나은 생활과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서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생활에 실망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동거가족은 49.4%가 부부와의 친족원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핵가족 외에 다른 친족원이 있으므로써 긍정적인 면은 자녀를 키우고 자신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할 일이 많고 자신의 일에 간섭이 심하다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결혼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은 외국인 며느리를 맞아들인 시부모들의 의식교육과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가장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며, 이러한 점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낳기도 하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여성은 소외감과 답답함으로 고통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언어를 빠른 시일 내에 배워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한글교육이 가정생활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가장 힘을 주면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배려와 진심어린 사랑이 있어야 잘 적응할 수 있고 한국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언어장벽, 갈등과 불만

## 참고 문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2호, 62-79.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 김애령(1998). 충남거주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 민가영(2004). 조선족여성이주를 둘러싼 조선족사회의 '여성유실'담론을 중심으로. 이대창립118주년기념학술대회자료집. 아시아여성연구소, 43-70.
- 박재규(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 방안연구.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123-128.
- 박종삼(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갈등의 임상적 고찰. 승전대학교논문집 12, 99-136.
-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여성결혼이민자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3-34.
- 보건복지부(2005). 2005. 07.14.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설동훈(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95)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화(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경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NGO협동과정.
- 양혜우(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토론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446-460.
- 위홍(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윤정숙, 임유경(2004).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 윤형숙(2004). 국제결혼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3인 공저'한국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 이윤애(2004). 전북지역외국인여성 정착지원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6
- 전북.충남RHRD센터(2006). 전북.충남지역 해외이주결혼가정을 위한 RHRD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정현옥(1999).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연구 ; 유입배경, 수용환경 및 부적응에 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제2권 3호.
- 최금혜(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호.
- 충남여성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여성을 위한 정책 모색 워크샵 자료집
- 통계청(2004). 인구동태조사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16.
- 한주연(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황달기(1993). 일본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일본학보 30. 461-491.

(2006. 05. 15 접수; 2006. 09. 08 채택)